

제6절 농가 경영효율성 평가를 위한 자료 구축 방안

본 절에서는 농가 경영효율성 평가의 신뢰성 제고와 효과적인 원인분석을 위한 자료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농촌진흥청 농가소득조사 및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와 농축산물생산비조사 설문문항 개선안을 제시하였다. 설문문항은 농가 및 전문가 면담을 통해 개발된 문항으로 향후 관련 통계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. 이와 관련하여 조사 정보의 풍부함과 정확도만큼 비용이 중요하다.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농가 및 경영 특성, 생산기술 특성, 정책사업 현황 등에 대한 설문문항에 대한 조사는 기존 조사항목 보강을 통해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조사에 따른 한계비용이 낮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으리라 사료된다.

1. 채소 : 배추, 무 농가 자료 구축 방안

채소류의 신뢰성 있는 농가 자료 구축을 위한 설문조사 문항 개발에서 통계청 조사품목인 고추농가는 제외하고, 농촌진흥청 농가소득조사 대상 품목인 배추와 무 농가를 대상으로 한 문항을 개발하였다. 배추와 무 농가의 경영효율성과 관련된 이슈는 다음과 같고, 개발된 문항은 <표 3-6-1>에 정리하였다.

이슈 1. 경영주 재배경력 : 경영주의 재배경력을 원인변수로 사용한 연구로는 시설토마토의 생산 효율성을 대상으로 한 임청룡 외(2014)의 연구가 있으며, 재배경력은 시설토마토의 생산효율성에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 그 외의 논문에서는 경영주의 연령을 원인변수로 선정했으며, 경영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효율성이 감소한다는 결과(Kang and Kim, 2009)와 증가한다는 결과(홍의연 외, 2006),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는 결과(홍승지·박재홍, 2008; 이춘수·양승룡, 2012)와 같이 다양한 결과가 도출되었다.

이슈 2. 농가 영농일지 작성 및 영농교육 효과 : 농가의 경영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영농일지 작성 여부, 영농교육 참여도를 개발하였다. 영농일지 작성 시 체계적 재배 관리로 배분효율성의 증대가 기대된다(가설 2-1). 전주영(2013), 이향미 외(2013) 등의 연구에서는 고랭지 배추 농가의 경우 암묵적인 지식과 관행농법에 의존해 체계화된 기술 축적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영농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. 영농기술교육은 배추와 무 재배농가의 경영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이슈 3. 자가종묘 여부 : 배추와 무의 경우 종묘를 키워서 호박과 같은 다른 품종의 대목에 접목을 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. 접목을 시킬 때 기술적인 부분과 더불어 작업량도 늘어나기 때문에, 접목된 종묘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. 접목료를 구입하는 농가는 구입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만 노동력이 절감되고 접목기술이 미흡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접목료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배분효율성과 기술효율성 상호 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.